

# “어디가 불편하세요?”

## 반갑다연우야, 네팔 이주민노동자 위한 양한방·치과 무료진료



반갑다연우야 이동한방버스에서 네팔 외국인 노동자가 무료 진료를 받고 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네?”  
“무거운 것 많이 드세요? 얼마나 오래되셨나요?”  
“네? 20~25kg이요. 2년 이요.”  
3월 27일 오후 1시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1번 출구 앞 불교의료지원단 반갑다연우야(총단장 구자선, 사단법인 연우 이사장) 무료 한방·치과 버스가 나란히 서있다. 두 대의 버스 안에서는 한방진료와 치과진료가 진행되고 있었다. 반갑다연우야는 전국병원자연화회(회장 류재환, 병률원)와 함께 네팔 이주민노동자를 위한 무료진료를 진행했다. 반갑다연우야는 지난해 11월 재단법인

양한(이장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로부터 기증받은 이동한방버스에서 3번 째 진료를 진행하고 있었다. 한국에 2년이나 있었다는 외국인 노동자는 아직 한국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다. 통역사가 잠시 다른 곳에 봉사하러 간 사이 손짓 발짓과 짧은 한국어로 아픈 곳을 설명해야 했다. 버스 안 양쪽에 놓인 침대 사이의 공간은 한 사람이 겨우 이동할 만한 좁은 공간이었지만 진료에는 문제가 없었다. 한방 진료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것이지만 거부감보다는 “한결 나아졌다”며 웃음을 지었다. 완전히 다 낫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

게 한 번이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었다. 라나(24)는 “일반 버스인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 병원이어서 신기했다. 가슴이 답답해서 왔는데 지금은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동한방버스는 35인승 크기의 버스(현대 에어로타운 1억 3000여 만원)를 개조한 것으로 혈압측정, 문진, 침술치료가 가능하다. 내부에는 4개의 침상과 침술 치료 이외에 뜸 시술을 위한 별도의 환기시설도 추가로 배치했다. 병률원 회원인 박종훈 한의사(분당 도제 한의원)는 “한의원 보다 내부 시설이 좋은 것 같다. 의료 취약 지역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양의약과 달리 침을 놓은 후 15분 정도 쉼을 주는 유침 시간이 필요한 한방치료의 특성상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전에 비해 조건이 좋아져 기쁘다”고 말했다. 2달에 한 번씩 이주민노동자 무료 진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날 35명의 외국인 노동자는 치과, 내과, 한방, 심전도, 피검사 등을 받았다. 평소에는 50여 명이 참가하지만 단속 기간이 되면 급격히 줄어든다고 한다. 이날 때 이동버스는 어느 때보다 능력을 발휘한다. 그동안 양·한방 무료 진료를 병행했던 반갑다연우야는 한방 진료

를 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았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낮은 한방 치료지만 의료취약계층의 어르신들에게는 단연 인기 있는 진료다보니 시설 기관 밖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때도 있었다. 이동한방진료버스로 훈훈한 기운이 유지되는 버스 안은 한방 진료하기에 안성맞춤인 공간이 됐다. 특히 양·한방 무료진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식사 문제 등으로 내과 부분의 호소가 많은 외국인노동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 반갑다연우야 장성원 홍보팀장은 “추운데서 침을 맞아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 옷을 벗어야 침을 맞을 수 있을 때는 여러모로 난감한 상황이 많았다. 외국인노동자들 대부분은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고, 병원 시간을 맞추기 힘들어 병원에 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이 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갑다연우야는 앞으로 동국대 일산병원 등과 미등목 이주민노동자를 위한 이동진료와 함께 예방치료를 중심으로 하고, 봉사를 통한 자비의 실천을 위해서다. 이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예방차 이주민진료를 진행할 계획이다. 3·6·9·12월 분기별로 피검사, 흉부 X-ray 등을 정기 검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르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02)733-7277 이상언 기자

박기범 기자의 라후라존자를 찾아서

## 봉사활동으로 마음의 잡초 뽑았다

### 청주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유 내 선 자원봉사자



“우리 모두 세상에 빛을 지고 삽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그 빛을 갖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내선(청주 내덕2동·69·사)씨는 2003년부터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북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영식)에서 어르신들의 물리치료를 돕는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주변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시작했으나 봉사를 통한 보람과 재미를 느끼면서 8년째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다. 유 씨는 2000년경 중이염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다. 복지관에서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도 건강 때문에 급식 봉사 등 강도 높은 활동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차츰 보람을 느껴왔다. 유내선 씨는 청주에 위치한 가톨릭계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종교를 떠나 봉사를 통한 자비의 실천을 위해서다. 이웃종교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지만 그곳 봉사자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도 많다고 한다. “봉사를 통해 제가 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시

는 분들을 볼 때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내선 씨는 스스로를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어르신들도 모두 좋은 분들이라 8년 동안 말다툼 한 번 없었고, 함께 활동을 하는 봉사자들도 마음이 바른 사람들이고, 직장 동료들도 모두 좋은 사람들 뿐이라고 한다. 유 씨는 항상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강조했다. “청화 스님이 마음 밭의 잡초를 뽑고 좋은 나무를 심으라고 했는데, 봉사활동을 통해 내 마음의 잡초를 뽑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박기범 기자

청수사에 매일 새벽기도를 다니는 유 씨는 법회에서 좋은 말씀을 듣고 오면 물리치료를 받으러 온 어르신들에게 전해주기도 한다. 이렇게 법회와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내선씨의 마음은 넓어지고 이해심도 깊어졌다. “예전 같으면 화를 내고, 다름이 있을 것 같은 일도 요새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하게 되요. 봉사활동이 종교생활과 연관돼 있어 불신도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 수렁에 있어서 불교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유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종교 활동을 할 것을 권한다. 새벽기도를 다니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 했던 남편도 유 씨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는 새벽기도 일정을 챙겨줄 정도로 적극적이다. 유내선 씨는 물리치료를 찾아오는 어르신들이 몸이 건강해졌다고 말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유 씨는 또 어르신들이 밤을 잘 드시는 모습을 볼 때 절로 웃음이 난다고 한다. “무애무덕하게 지내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박기범 기자

## 원폭피해자 전문 복지시설 탄생

### 합천 평화의 집, 원폭피해자·2세 복지지원

합천 평화의 집(원장 윤여준)이 원폭피해자와 원폭2세 환우를 대상으로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 평화의 집은 부설 ‘원폭피해자·2세 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3월 30일 합천 평화의 집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지원센터는 원폭피해자와 원폭2세 환우를 대상으로 상담 및 자조 모임, 역량강화 프로그램, 재가복지서비스와 말하기모임, 미술치료, 음악치료, 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평화의 집 관계자는 “지원센터는 원폭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와 교육, 훈련 과정을 실시할 것이며 이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룹홈,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평화의 집은 합천고려병원, 합천병원과 협력해 원폭피해자 전문 촉탁의 제도를 두어 원폭피해자 및 2세 환우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진료와 상담, 치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070)4116-0301 이나은 기자



자승 스님 북한이탈주민 격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3월 28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원장 윤미량)에 방문했다. 자승 스님은 이날 하나원 교육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안성사암연합회 및 포교사의 노고를 치하하고 하나원 교육생들에게도 단추를 건네며,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복을 가져다주는 단추의 의미를 설명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날 하나원 교육생 중 250여 명의 퇴소자들을 위해 이불을 한 채씩 지원했다. 이나은 기자

## “창립 20주년,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 여 선 구 한국전력공사 반야회·전불연 회장



“보살도를 실천하는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고자 장기기증 협약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전력 사내 불자 모임 반야회(회장 여선구)는 3월 26일 봉은사에서 열린 창립 제20주년과 전력인불자연합 창립 제1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법회에서 생명나눔 실천본부와 ‘장기기증 업무제휴 협약서’를 체결했다.

전불연 여선구(한국전력 영일역) 회장은 “창립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희생하여 중생을 살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고자 전 불연 임원진을 포함하여 10여 명의 회원들이 우선 동참했다”며 “생명나눔을 통한 자비 세상 구현과 보살행 실천에 대한 취지를 꾸준히 홍보하여 보다 많은 회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야회는 1990년 한전 본사 중심으로 창립돼 1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전력인불자연합회는 한전 전국 지사 등에서 근무하는 불

자로 구성돼 7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한전 반야회와 전불연의 각 지회는 매월 1회 인근 사찰이나 회사에서 정기법회를 개최한다. 1년에 2회 전국의 유명 사찰에서 연합법회를 열고 철야정진을 하고 있다. 여선구 회장은 “그간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었는지, 신심이 둔탁해졌는지,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정한 불자로서 살려고 노력했는지 항상 돌아보고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천진영 기자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격과정	교육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연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학	14주 과정 토요일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부교육원

창원 055-543-6155	호남 063-288-5623	대구 053-566-1116	울산 052-260-1037
부산 051-441-0111	경남 055-932-5877	제주 064-755-7588	전북익산 063-854-1060
지리산 063-635-5112	해운대 051-757-999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 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1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교육기간 및 과정(1년)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중송동
    - 예 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정, 상단·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옥, 옹호계(신중작법39위,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방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송,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시, 호적(태평소)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달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 강 주 : 김범은 스님, 상은 스님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학자격 : 승려, 전법사, 포교사, 재가불자 등 종단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함
-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 별도)
- 강의장소 : 경북 경산시 계양동 685-2 안평사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소에서 교부)
- 접수처 : 경북 경산시 계양동 685-2 안평사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문의처 : 053)818-2546, 팩스 054)974-2605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원